영암 월출페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조선업 취업자·이주정착금 지급
25만원씩 12개월 동안 300만원
외식업 등 가맹점 100곳서 사용

영암군 지역화폐 '월출페이'가 조선업 신규·재취업자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조선업 신규 및 재취업자 이주정착금'을 영암형 지역사랑상품권 '월출페이'로 지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전남도와 함께 조선업 전입 인력에게 월 25만원씩 12개월 동안 3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영암군은 올해 3월부터 정착금 제도 참여자를 모집했다. 정착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재취업자 24명에게 지난달 600만원을, 이달에는 30명에게 75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8명은 입사 3개월 요건을 충족하는 달부터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월출페이 대행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지역상권에 풀린 이주정착금은 442만원이다. 지급된 600만원 월출페이 중 최소 74%가 지역상권에서 사용된 셈이다.

지역화폐는 외식업체, 생필품 판매업체, 의료기관 등 영암 가맹점 100곳 이상에서 쓰였다. 마트와 편의점의 이용 비율이 높고, 식당과 주유소, 병·의원과 약국, 이용숙박업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됐다.

이달에 지급된 이주정착금이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비율로 쓰일 경우, 1,000만원이 지역상권 안에서 돌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조선업 일자리를 찾아 영암으로 전입한 김상진씨(57)는 "이주정착금을 받아 생활비 부담을 줄였다"며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으면서 마트, 식당, 주유소 등 지역 상권 이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이주정착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전입·취업한 이에게 지급된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나 조선업 2년 이상 종사 경력의 재취업자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영암군 기업지원과에 방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팩스로 접수할 경우, 전화로 사전 연락 해야 한다.

김명선 영암군 기업지원과장은 "영암 쌀 소비, 지역화폐 구매 등 대불산단 조선업 기업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부를 지역경제에 먼저 투입하는 지역순환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주정착금 제도를 포함해 기업과 직원,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김한종 장성군수가 농촌왕진버스가 운영되는 삼계농협 대회의실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눴다. 장성군 제공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장성군 농촌왕진버스 호응

장성군이 지역농협과 함께 운영하는 '농촌왕진버스'가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촌왕진버스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에게 약방, 검안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장성농협과 삼서농협에서 처음 시행해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장성군, 농협중앙회가 함께 주최하고 장성·진원·삼계·황룡농협이 각각 주관해 총 4회 운영된다.

1차 농촌왕진버스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원농협회관에서 열렸다. 500여명의 주민이 방문해 건강 상담을 받고 영양제 수액 처치와 눈 검사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2차는 22일까지 삼계농협 대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첫날부터 마을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 오는 7월에는 황룡농협 대회의실, 11월에는 장성농협 대회의실로 농촌왕진버스가 출동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모든 군민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함평군이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농특산품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중국 상하이천일무역, 농특산품 수출협약

국제식품박람회서 70개국 상담

함평군이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평군은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현지 유통기업인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농특산품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함평군은 조미김, 분말식초 등 지역 농특산 가공품의 중국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 특성을 반영해 수출 품목을 구성했으며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70여 개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와 제품 시연 등 함평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적극 홍보 중이며 실질적인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농산물 고부가 상품화를 위한 가공 기반 확대와 함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 관계자는 "조미김과 농특산가공품은 품질과 맛 모두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 농산물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과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목포시, 영상 공모전 내달 27일까지 접수

목포시는 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목포를 소개하고,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6월 27일까지로, 목포시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가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목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영상이다.

목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매력적인 관광지, 특색 있는 음식 등을 소재로 한 3분 이내의 영상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장르는 웹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목포시는 심사를 거쳐 총 5편의 우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1명 100만원 △장려상 3명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수상작 발표는 7월 15일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은 목포시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되며, 시의 관광 홍보 및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수장고 준비실에 펼쳐진 각종 소장유물 강진군 제공

강진고려청자박물관, 수장고 개방 참가팀 모집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수장고' 프로그램 참가팀을 모집한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수장고는 박물관의 전시 공간보다 훨씬 많은 유물들이 보관된 비밀공간이다. 수장고 개방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보존·연구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운영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된다. 회차별 1개 팀 총 4개 팀을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오는 30일까지 고려청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려청자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천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열린 수장고 프로그램은 지역민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박물관의 또 다른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서해해경-중 산둥성 구조센터, 수색 통신훈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중국 산둥성 수색구조센터와 유조선과 어선 간 충돌 사고를 가상한 해상 수색구조 통신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훈련은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한·중 해상 수색구조기관 간 협력훈련으로, 해상에서 양국 선박 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고 상황전파 및 정보 공유,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절차 등을 점검하고, 양국 구조기관 간 통신체계의 실효성과 신속성 등을 검증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영광복지기동대, 전남어르신체전서 캠페인

영광군 복지기동대는 최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개최된 제20회 전남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대원들은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음수 봉사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에게 복지기동대 활동을 알리고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를 홍보했다.

영광군은 1억2,300만원의 복권기금을 확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일상생활 속 불편을 겪는 주민의 어려움과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강진군, 2기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 운영

강진군보건소는 제2기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리교실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주 동안 운영되며 보건소 전문 인력과 외부 강사진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병행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사전·사후 BMI, 콜레스테롤 측정 및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 △요가·체조·스트레칭 △영양교육 및 실습 등을 제공한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번 2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